

선악과인가? 생명과인가? (3)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나 생명나무의 열매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비로소 선악을 알게 된 다든지, 영생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강조한 바 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도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케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 있지 않는가! 생명나무는 생명과 영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리는 실물 교훈이었다.

생명나무는 단순히 살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영생의 나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다(요 11:25-26).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다(요 6:63). 그래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요 6:68)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이다. 결코 주리지 않고 죽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6:35, 51) 그를 믿는 자는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가진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쫓겨나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먹고 누리게 하셨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영생을 죽어서나 누리는 것으로만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먹고 누릴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계 2:7), 영원한 천국에 생명나무와 과실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계 22:2).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 생명과 영생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며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쓴다고 말씀하셨다(요일 5:11-13).

따라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영생의 근원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과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과 영생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 나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배우고 실천하고 전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가 먹고 누리는 생명나무의 열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오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는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영생과 치유와 회복, 변화와 성장과 성숙,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과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것 등등의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닌가! 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먹고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생명처럼 믿고 굳게 붙잡고 서서 담대하게 전해야 할 것이다.